

“지금의 KIA, 질 것 같지가 않다”



“질 것 같지가 않다.” 마운드를 재정비한 KIA 타이거즈는 지난 주 5연승 행진을 하면서 순위 싸움에 재시동을 걸었다.

일단 KIA는 외국인 투수를 전면 교체하면서 마리오 산체스와 토마스 파노니로 새 판을 썼다. 산체스는 9일 KT전에서 6.1이닝 1실점 10K의 호투를 하면서 데뷔전에서 승리투수가 됐다.

지난해에도 대체 외국인 선수로 KIA 유니폼을 입었던 파노니는 12일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안방에서 복귀전에 나선다. 윤영철이 선발 준비를 했던 11일 삼성과의 홈경기가 비로 취소됐지만 파노니가 예정대로 12일 선발로 출격한다.

김종국 감독이 두 투수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닝’. 산체스의 활약으로 5연승을 이었던 KIA는 지난 주 불펜진 재정비에도 성공했다.

KIA는 경험 많은 전상현과 장현식에게 마지막 순간을 맡기면서 최지민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다. 특히 6일 SSG전에서는 실책이 빌미가 돼 막판 위기가 있었지만 장현식이 1.1이닝 무실점으로 뒷문을 단속하면서 1점 차 승리를 지키기도 했다.

시즌 초반이 좋지 못했던 정해영도 35일 만에 마운드에 재합류해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등 불펜도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

김종국 감독도 11일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앞선 5연승 성과에 대해 “선발투수들이 자기 몫을 잘해

재정비된 마운드 ‘탄탄’

포수 김태군 가세 ‘천군만마’

연승에 선수들 자신감 커져

했다. 불펜진도 수원에서 불펜데이가 있었는데 (김)재열이도 그렇고 자기 몫을 잘해줬다”며 “(마무리) 상황에 맞게 하려고 한다. 최지민이 가장 뒤쪽에 있는 탓에 심적으로 부담이 커보인다. 그래서 장현식과 전상현을 뒤로 보낸 게 맞다. 좌타자가 나올 경우에는 최지민 뒤로 갈 수 있는 등 상대로 테이션 맞춰 불펜 투수를 활용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또 “정해영도 좋아지는 모습 보여줬고, 점점 뒤로 갈 수 있게 할 생각이다. 팀 입장에서 해영이가 맨 뒤에서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다”고 덧붙였다.

젊은 마운드에 노련한 포수 김태군의 가세도 천군만마다.

김종국 감독은 “김태군이 경험이 많으니까 투수들이 조금 더 그 경험을 믿고 리드대로 편하게 던지는 것 같다. 특히 어린 선수들이 심적으로 편한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수를 불넷도 많이 줄고,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톱니바퀴처럼 마운드가 돌아가면서 선수들의 자

신감도 커졌다.

1군 재합류 후 10경기에서 9.1이닝 무실점의 피칭을 기록하고 있는 전상현도 “1점차 승부에서 많이 이겨야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데 지난 주 1점차 승리를 만들면서 선수들이 자신감을 얻었다. ‘질 것 같지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선수단 분위기를 전했다.

2군에서 호흡을 가다듬었던 전상현은 더 견고한 모습으로 마운드를 지키면서 ‘믿음’을 얻겠다는 각오다.

전상현은 “아직 부족하다. 시즌 초반부터 팬들, 감독님, 코치님, 동료들에게 믿음을 많이 못 줬다. 지금은 믿음을 주고 싶다”며 “2군에 있으면서 밸런스를 찾으려고 했다.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내려놓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잡혔다. 결정적 계기가 된 것 같다.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아직은 만족 못하지만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더 좋은 모습, 안정감 있는 모습으로 신뢰를 주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내가 정해진 위치가 없으니까 언제나 가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최대한 내 임무를 마치자는 생각이다. 지난 주에도 이닝 생각 안하고 내가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 무조건 막자는 생각이었”다며 “내가 올라가면 계산이 되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다. 팀도 후반기에 더 좋은 날이 많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 다 돌아왔고, 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파노니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단 선전 다짐

제20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아티스틱스위밍, 오픈워터스위밍, 다이빙 선수단이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제20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진행된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SSG 2군서 집단 가혹 행위 ‘충격’

“건방지다” 일차려·방망이 폭행

KBO 조사, 상벌위 개최 예정

프로야구 SSG 랜더스 퓨처스(2군)팀에서 과거 군대에서나 일어났을 법한 가혹 행위와 이에 따른 추가 폭행, 또 다른 가혹행위가 연쇄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따르면 SSG 구단은 퓨처스팀에서 벌어진 집단 가혹행위와 불미스러운 폭행 사실을 7일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하고 9일 경위서를 제출했다.

사건은 6일 SSG 퓨처스파크에서 발생한 화상 SSG 퓨처스파크에서 발생했다.

A 선수가 올해 신인인 B가 건방지게 굴었다며 점심시간에 후배들을 불러 모은 뒤 일차려를 가했

다. 일차려가 끝난 뒤 C 선수가 원인을 제공한 B 선수를 방망이로 때렸다.

C의 폭행 후 단체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은 D가 또 후배들에게 집단 일차려를 이어갔다.

단체 가혹행위에 2, 3차로 추가 가해가 개별적·집단으로 이어진 셈이다.

퓨처스팀 코치가 우연히 B의 몸 상태를 확인하다가 선수들의 가혹 행위를 뒤늦게 알고 구단에 보

고했고, SSG 구단은 이를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SSG 구단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사과 드린다”며 “사건을 인지하고서 바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했고, 가해자는 선수단 활동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있다”며 “상벌위원회 결과 등을 충실하게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일단 SSG 구단은 피해자 B의 말장난을 A 선수가 오해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KBO 사무국은 “현재 사건을 심도 있게 조사 중이며 다음주에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해리 케인 붙잡기 ... 토트넘, 마지막 설득 통할까

‘세계 최고 골잡이’ 가운데 한 명인 해리 케인을 붙잡기 위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홉스퍼가 마지막 설득을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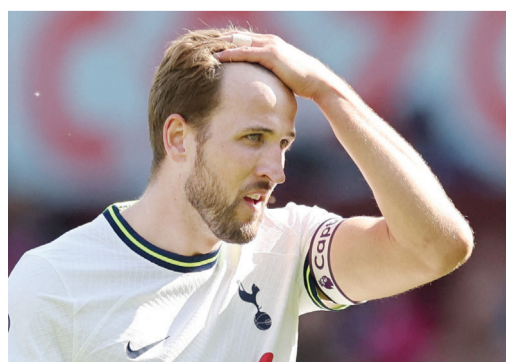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신임 감독은 11일(한국시간) 진행된 취임 기자회견에서 바이에른 뮌헨(독일) 이적설이 도는 케인과 함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난 케인의 미래에 대해 어떤 보장도 받지 못했고, 어떠한 보장도 기대하

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인 케인이 우리 팀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프리시즌 훈련이 시작되는 이번 주 안으로 케인과 면담을 할 계획이다.

그는 “토트넘을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에 관해 케인과 대화를 나누겠다. 케인도 토트넘의 성공을 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케인에게 축구단에 대한 나의 비전을 제시하려고 한다. 토트넘의 성공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그의 의견도 들



해리 케인

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케인이 훈련장 그라운드로 나가

성공에 필요한 것들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케인은 EPL을 대표하는 간판 골잡이다.

프로 경력 초기 임대로 댈 기간을 제외하면 토트넘에서만 정규리그 317경기를 뛰면서 무려 213골을 넣었다.

공식전 기록까지 합치면 토트넘에서 435경기를 뛰며 280골을 쏘아냈다.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84경기에 출전해 58골을 쏘아 ‘역대 최다골’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EPL 우승은 이루지 못했다. 열성 팬들은 그가 ‘우승 야망’이 부족한 토트넘을 벗어나 리그 우승이 가능한 ‘진정한 빅클럽’에 새 등지를 틀기를 바란다. /연합뉴스

김연아 소치올림픽 ‘은’ 금메달로 바뀔까

소트니코바 도핑 의혹 조사 요구

대한체육회가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금메달리스트 아멜리나 소트니코바(27·러시아)의 도핑 의혹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11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서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며 “해당 자료와 과거 사례 등을 모아 IOC에 소트니코바 재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소트니코바는 2014년 1차 검사에서 양성, 2차 검사에서 음성 받았다고 본인의 입으로 말했다”며 “이는 매우 희박한 사례라 재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그동안 도핑 검사 기술이 향상된 만큼, 당시엔 확실하게 적발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소트니코바는 소치 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에서 편파 판정 논란 끝에 김연아(은퇴)를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대회 후엔 판정 논란뿐 아니라 도핑 논란에 휘말렸다.

소트니코바는 IOC가 러시아의 조직적인 약물 투여 실태를 조사한 2016년 소변 샘플이 훼손됐던 것으로 알려져 도핑 의혹을 받았다.

당시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소트니코바는 최근 다시 한번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2014년 도핑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었다”며 “난 두 번째 테스트를 받아야 했고, 다행히 두 번째 샘플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징계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올림픽에서 압박 받는 느낌”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의도치 않게 도핑 양성 사실을 고백한 것이다.

해당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도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약물 투여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국내에선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소트니코바의 재조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만약 IOC가 재조사해 문제가 확인돼 소트니코바의 메달이 박탈되면 김연아에게 금메달이 돌아간다.

실제로 대회 종료 후 도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 차순위 선수에게 메달이 전달된 사례는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역대 국가대표 출신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4위를 했지만, 동메달을 땀던 흐리프시메 쿠르수다(아르메니아)의 소변 샘플에서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돼 장차관이 뒤늦게 동메달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